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3. 8 ~ 2020. 3. 21 제221호



▶ 키르기스스탄의 소녀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기다림

나른한 오후, 한 소녀가 문턱에 걸터앉아 턱을 괴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누군가가 오지 않아 약간 심통도 났는지, 땀들 위에 어수선하게 벗어던져놓은 신발이 소녀의 마음 같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언제 올지, 과연 오거나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림을 멈추려 한다.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펼쳐질지, '속히 오리라'는 그 주님은 과연 이 세대에 오실지, 주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과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은 언제쯤 넘치도록 채워질지... 심통 난 아이처럼 앉아 있다 가도 주님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주시기만 하면 눈이 떠진다. 이미 완전한 복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현

실 사이에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목마르게 기다린다.

[GNPNEWS]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베드로후서 3: 8~9)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美, 선거 앞두고 성경적 결혼관 등 기독교인 가이드라인 제시

다음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가 2020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크리스천 투표 가이드라인을 최근 제시했다. TV넥스트는 투표는 '정치'가 아닌,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삶의 방향을 좌우할 흐름을 잡는 것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해 후보자들의 설문조사 및 그들의 정책 전력,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투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우리 나라 역시 4·15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투표 가이드라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총 4개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 -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며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다. ▲생명의 존엄성 -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배속의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인간이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 - 미국 건립에 보통인 역할한 한 기독교 신앙이 정부의 참견 없이 헌법에 의거하여 계속 지켜져야 하며 역차별 받아선 안 된다. ▲시민들의 안전, 학부모의 권리, 다음세대의 건강한 교육 등이다.

TV넥스트는 성경적 가치관에 투표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비윤리적인 성교육이 발전된 사례를 꼽으며 이번 투표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현재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ACR99, AB2943과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안들이 나왔다.

ACR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AB2943은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종 광고나 홍보 활동, 실제 치료나 관련 세미나는 물론,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과 조언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TV넥스트는 “투표 때마다 그런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뽑아준 학부모, 교인, 시민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과 교회들이 그 결과물들을 얻게 된 것”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GNPNEWS]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2:1~2)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미국의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5)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무지(無知)입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것 일까요? 첫째, 복음을 모른

다는 것이고 둘째,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

니다. 결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를 모르니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세속의 가치를 버리지 못해 두려움에 빠진 채 복음에 올인(all in)하지 못하고, 복음의 실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알까요?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에 실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진짜 실재 노릇을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실

세(實勢)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나를 움직이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아는 길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복음은 관념이 아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야망 성취를 위해 도구로 써먹었던 복음, 나의 알량한 의(義)를 변호하기 위해 치장했던 복음,

눈곱만한 자존심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맥 빠진 복음, 말만 무성하고 신학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복음은 애당초 없습니다. 복음은 원래의 자리에서 최고의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와 구원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과 실재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 | 규장 | 2017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中 목회자들, 코로나19 위험속 교인들에게 도움의 손길



▶ 중국 우한의 목회자들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고 있다. (출처: Unsplash 캡처)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사망자가 2월 말 현재 290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우한 주변 지역 목회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교인들을 돕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헬프(World

Help) 마크 호그시드 부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 내 지역 교회 및 목회자들과 성경 배포 및 복음 전도를 했던 네트워크를 통해 우한 주변 지역 교인들에게 식료품 뿐 아니라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는 되도록 더 많은

교인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식료품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대학교 국제안전연구센터 감염 전문가인 아담 캄라드 스콧 박사는 “약 17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그 중 사망한 이들도 있다. 게다가 병원들은 심각한 마스크 및 물품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며 “목회자들을 비롯해 월드헬프와 협력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생명의 위협에도 나서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목회자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섬기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GNPNEWS]

주님 만난 미국 트랜스젠더, 다시 남자로

제인스 슈페는 작년 12월, 성별란에 남자라는 표시의 'M'이 적힌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그는 미국 최초의 합법적 무성애자(non-binary, 남성도 여성도 아닌) 신분을 소유했던 탈 성전환자다. 다음세대의 성경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활동하는 TV(Traditional Value)넥스트가 최근 그의 회심 과정을 소개했다.

한때 트랜스젠더 운동가였던 그는 “스스로를 여자(실제로는 남자)라고 인식하는 때가 있었는데, 성전환 이념(ideology)을 퍼뜨리는 자들에 의해 세뇌를 당해 내가 정말로 성전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여자 화장실을 쓰는 것은 인권

의 문제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생각과 주장들은 여자가 되는 성적 환상에 대한 이기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성애자가 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과 사기, 가짜 과학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사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2019년 4월에 그는 자신의 성적 혼돈의 진짜 이유가 ‘성 도착증(sexual paraphilia)’임을 받아들이고, 12월에 크리스천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의 성별전환 청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는 청원서에 자신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남자 성별’을 되찾기 원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가 가족들을 강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며, 더 나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때때로 지금도 여성의류를 사들이는 병이 재발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의 재발이 남성을 여성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제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됐다.”고 고백했다. [GNPNEWS]

코로나19, 국내 의료체계 붕괴 위험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이 악화되면서 중증환자들의 정상 진료가 어려워지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등 코로나19에 의한 부수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혈액 보유량이 이달 5일 2.9일분까지 떨어졌으며 20일 기준 혈액 보유분은 4.4일치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 이상인 280여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 수급 위기대

응 체계’ 마련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지만 혈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응급환자 등은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회의회 대표는 “안정적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적 재난사태이므로 코로나19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백번이고 맞는 말

이지만 그 이면에 중증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의 폐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생사를 오가는 시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돌아가는 한편, 방역을 하는 기간 동안 중증환자들은 이리저리 이동을 하게 돼 응급환자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코로나19에 의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운영 가능한 범위(surge capacity)’를 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2.17 ~ 2.29)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온워드’서 LGBTQ 캐릭터 내세워

월트디즈니가 LGBTQ(동성애자 외)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내놓는다고 폭스뉴스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디즈니그룹 산하 픽사 스튜디오는 신작 ‘온워드: 단 하나의 기적’에서 여성 LGBTQ 캐릭터인 ‘스펜서’를 등장시켰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놓기 싫어하는 죄인의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된 생명에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애니메이션계에 선포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증인들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 ‘트럼프 사찰’ 만들어 승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남부 텔랑가나 주의 잔가온 지역에 사는 30대 농부 부사 크리슈나는 자신의 집 부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작은 사찰을 만들어 기리고 있다고 20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주님, 3억이 넘는 신들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함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 땅에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 영원한 만족과 행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시켜 주십시오.

코로나19, 전 세계 500만 여 기업 영향 우려

글로벌 리서치 기업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가 코로나19가 500만 곳 넘는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 더욱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체포, 실종, 연락두절... 잡혀가는 중지식인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현장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해 온 시민기자 2명이 차례로 실종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던 기독교인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명예회복을 요구한 인권변호사·법학자 등이 체포되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한 중국 지식인에 대한 당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17일 홍콩 명보가 보도했다.

하나님, 모든 진실을 가리고 숨기는 중국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회복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3월 9일 ~ 3월 21일

3월 9일 ~ 3월 14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3.9~13(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3.9~10,13~14(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3.10(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3.10~13(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3.11(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 010-7925-6004, 3.13(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그외 4교회 진행중.

3월 16일 ~ 3월 2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3.16,18~21(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3.16~21(10~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3.19(10~15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3.20(10~14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적은교회(강**)010-7129-7224, 3.20(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3.20(10시)~2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3.20~21(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유럽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학생들 68개국 3000여 명 모여

20여 개 학생선교단체, 한 해 동안 캠퍼스 기도로 준비

유럽의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 학생들이 지난해 말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부흥 유럽'을 꿈꾸며 한 자리에 모였다.

68개국에서 온 30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유럽의 영적갈망을 복음에서 찾으려는 집회가 12월 27일부터 6일간 독일에서 열렸다.

스페인 인터넷미디어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18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청년 학생들이 이 같은 꿈을 품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워크숍,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며 뜨거운 집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유럽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유럽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매체다.

이번 집회기간 동안 존 테더와 제프 니콜라 같은 강사들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오늘날 유럽이 영적인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등을 나눴다.

이번 집회는 국제복음주의학생

회(IFES), 크루(Cru), 네비게이터(Navigator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Christ) 등 20여 개의 단체가 부흥 유럽을 꿈꾸며 지난해 2월부터 40주간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한 나라에 대한 1분짜리 영상 기도 정보를 공유했다. 각 영상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5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복음주의 성도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한 리투아니아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부흥 리투아니아(Revive Lithuania)' 영상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20여 개국에서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은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부흥 스웨덴' 영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대담함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길, 또한 하나님이 스웨덴에 다시 한 번 큰일을 행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길 기도해 달

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40주간의 사전 기도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마음의 이상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는 한편, 유럽 각 나라의 이상과 유럽 대륙 전체를 위해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

부흥 유럽을 꿈꾸는 유럽 학생들의 움직임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들은 수년째 세속화의 물결과 맞서 싸우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선교주간'을 조직해서 공개 토론이나 변증의 시간을 가지거나 캠퍼스 점심식사 때 활동 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30개의 유럽 국가에서 진행된 선교주간을 갖기도 했다.

팀 켈러 목사는 부흥 유럽 집회를 앞두고 "역사적으로 부흥은 특별한 기도, 은혜의 복음으로 회복, 회개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나니아 연대기 책에서처럼 누구도 같은 방법으로 나니아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



▶ 유럽 전역의 복음주의 대학생들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6일간 독일에 모였다.(출처: Revive Europe 캡처)

공통적인 요인은 있지만, 정형화된 공식은 없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로운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집회 이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자신들이 소속한 대학에서 또 유럽 사회 곳곳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부흥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했다.

한편,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캠퍼스 사역의 부흥과 선교 단체

들 간의 연합에 대한 비슷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버시티(InterVarsity)와 크루(Cru)에 의해 시작된 캠퍼스 연합 운동인 에브리캠퍼스(EveryCampus)를 통해 미국 대학 캠퍼스의 부흥을 위한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 4948개의 캠퍼스에서 땅밋기 기도를 목표로 캠퍼스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다.

[GNPNEWS]

번역=본지 국제팀

식인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서 파푸아, 인종 청소 우려

종교자유기도정보(RLPB)를 발간하고 있는 국제종교전문가이자 운동가인 엘리자베스 캔달이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의 원주민 서 파푸아 주민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편집자>

미국 출신 필립 마스터스 선교사와 호주 출신 스탠리 데일 선교사가 파푸아 지역 고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준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2015년 2월 시드니 모닝헤럴드에 기고한 글에서 마이클 베첼라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파푸아 지역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로라트 부족은 1968년에 백인을 처음 보게 됐다. 그 백인은 식인종인 그들의 사냥감이 되었다. 호주 선교사인 스탠리 데일은 산 등성이를 넘어 계곡으로 올라갔을 때, 그를 둘러싼 부족들은 선교사를 악귀로 여겼다. 그들은 스탠리 데일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인 미국 출신 필립 마스터스 선교사를 쫓아가 활과 화살로 죽이고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의 모든 부족민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들의 핏값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됐다. 그리고 스탠리 데일 선교사는 순교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파푸아 주민들은 선교사

가 그 땅에 발을 디딘지 수십 년 만에 사람을 죽이는 식인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창단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들 파푸아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했다. 선교사들의 첫 방문 이듬해인 1970년에 파푸아는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편입됐다.

한때 네덜란드(또는 서부) 뉴기니로 알려진 파푸아는 '자유 선택 행위'라는 명분 아래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됐다. 파푸아 지명 또한 이리안자야로 변경됐다. 그러나 그 이후 파푸아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인도네시아 서 파푸아와 파푸아 지역을 흔드는 시위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파푸아가 외부인들에게 폐쇄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폐쇄된 인터넷을 부분적으로만 복구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하디 타잔토 육군사령관, 티토 카르나비아 경찰청장과 함께 6000여 명의 경찰과 군인들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슬람인들을 포함하는 다른 민병대와 바리산 메라 푸티흐(BMP, 적백인 부대) 민병대는 특수부대인 코파수스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BMP 민병대는

인도네시아 브리모브 무장 경찰과 코스트라드 전략예비군으로부터 상당한 전술적, 물류 지원을 받고 있다.

팍팍 지역에서 지난해 8월 총돌이 일어났다. 웨스트 파푸아 미디어가 공개한 영상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팍팍 지역에서 쇠파대와 칼로 무장한 친인도네시아 BMP 민병대가 파푸아인들을 추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파푸아에서 금지된 모닝스타 깃발이 게양되고 파푸아 주민들이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를 촉구하는 독립 집회가 열렸다.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 이 영상에는 BMP 민병대가 15세 파푸아 소년 마나슨 앤드루트를

공격하여 내장이 튀어나오는 처참한 모습을 담고 있다. 현장에는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 장교가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언론인들과 분석가들은 '과도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급증에 대한 인도네시아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슬람 세계관이 어떻게 종교 차별과 제국주의를 가져오는지, 또한 이슬람인과 비이슬람인을 철저히 구별해 비이슬람인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지역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대량 학살이 일어나거나 적어도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인종 청소와

기독교인의 자산 압류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 결국 한 세기 동안 파푸아는 식인종의 땅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기독교인들의 땅으로, 다시 인종 종교적인 증오와 지하드 및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자.

1.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파푸아 땅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준 헌신과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자비로 개입하셔서 서 파푸아와 파푸아를 덮고 있는 인권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사 40:10)
2. 파푸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하자. 파푸아 지역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히 12:1~2)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일하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출 14:13~14)
3.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파푸아 원주민인 멜라네시아 부족을 위해 마음을 쏟도록 기도하자. 그들은 구성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며 선교사들의 유산이다. [GNPNEWS]

번역=본지 국제팀



▶ 시위하고 있는 서 파푸아 주민들(출처: redpepper.org.uk 캡처)

기획 | 창조 이야기 (30)

대홍수 전, 두발가인은 쇠 전문가... 채소와 씨 섭취는 완전식단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화석화된 인간 망치가 발견됐다. 사람들은 홍수 전에는 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홍수 전에 존재한 사람들도 금속과 철에 대해 알았다. 그들은 아주 머리가 좋았다. 그러나 학교는 ‘지층이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고, 석탄기에 석탄이 만들어졌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이다. 석탄은 홍수 때 세상이 묻혔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1881년, 미국 일리노이에서 채굴된 석탄 덩어리 안에서 금사슬이 발견됐다. 철 냄비도 석탄 덩어리 안에서 발견되고, 아연과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도 수백만 년 됐다는 암석 안에서 발견됐다.

이라크에서는 배터리가 발견됐

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으로 예측되는 배터리다. 이들은 이미 옛날부터 전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도 전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전기도금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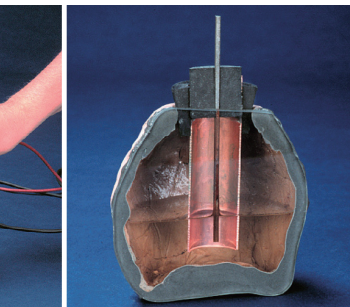


▶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이 배터리는 아스팔트로 만든 마개가 달린 점토 항아리모양으로 되어 있다. 아스팔트를 관통하는 철 막대는 구리 원통으로 둘러싸여 있다. 식초 혹은 다른 전해질 용액으로 채우면 약 1.1볼트를 생산할 수 있다. (출처: smith.edu 캡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산에서 5500만 년 됐다는 용암 아래의 광도에서 자갈 갭까지 파내려 갔을 때, 그곳에서 인간이 사용하던 도구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스미소니언의 홈스 교수는 이 연구자에 대해 “그가 인간 진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 결론들을 발표

하기를 주저했을 것이고 잇따른 반대 증언들에 맞서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화론에 부합하지 않는 그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명칭한 진화론에 아주 현신된 사람들이 진화



론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인쇄물까지도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진화론 방어의 거의 종교적 열심이다. 스미소니언은 진화론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숨기는 일에 아주 큰 책임이 있다.

1950년대에 캐나다 국립 박물관

의 토마스 리는 자갈 더미에서 상당히 개량된 석기를 발견했다. 문제는 6만 5000~12만 5000년으로 측정되는 자갈 더미였기에 캐나다에 인간이 있기에는 너무 오래된 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박물관 관장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해고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수 톤의 유물들이 저장고에서 사라진다. 그런 발견들은 사장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시 쓰이도록 강요될 테니까 말이다. 동전 하나가 일리노이의 우물 파던 사람에게 의해 100피트(약 30m) 지표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수가 세상을 물어버렸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홍수 전에 무엇을 먹어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식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다. 과일과 씨도 먹으라고 하셨다(창 1:29). 과일을 먹을 때는 씨도 먹어야 한다. 이 씨들 안에는 비타민 B17이라는 비타

민이 있는데 반은 청산가리다. 하지만 이건 독이 아니다. 수소는 폭발적이다. 산소는 연소를 도와준다. 이런 수소와 산소를 섞으면 물이 만들어진다. 나트륨은 독성이 있고 염소도 독성이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섞으면 소금이 된다. 완전한 양질의 식품이 된다. 이와 동일하게 씨 안에 있는 청산가리는 벤즈알데히드와 섞여 있다. 그 두 가지 모두 독이지만 섞어 놓으면 해롭지 않게 된다. 암세포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북부 파키스탄의 ‘훈자’라는 부족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살구 씨에 있다. 훈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살구 씨다. 암 환자 중에 영양요법을 받는 사람들의 생존률이 훨씬 더 높는데, 전형적인 의료 요법을 받을 때보다 생존 기회가 10배나 된다.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 제이슨 베일은 이렇게 말한다. “암을 치료하려면 살구 씨를 먹어야 한다. 암은 살구 씨를 먹는 사람의 몸 안에서 생존할 수 없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헤브론 고마 공동체 이야기 (2.끝)



민주콩고, 다음세대가 조국을 위해 통회하기 시작했다

이곳 민주콩고 고마의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주일마다 4시간을 훌쩍 넘기는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는 성도는 전체 교인의 10%에 불과하다. 심지어 목회자인 전도사라 해도 성경 일독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심각한 신학의 부재와 말씀에 대한 혼탁함은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우리 부부가 처음 고마에 도착해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설교자가 ‘예수님은 흑인이었다.’

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도들은 아멘하며 박수를 쳤다. 그 모습에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게 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또 링갈라어와 스와힐리어와 각 부족이 가진 부족 언어도 있어 한 가지 언어로 성경을 접하지 않는 상황이기 성경 암송은 더욱 쉽지 않다. 또한 생활 속에 녹아 내려오는 기복신앙과 전통은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에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는 그저 도움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환경이 나아지는 것, 잘 되는 것, 아프지 않고 잘 먹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든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주중에 말씀공부가 이루어지는 현지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도회로는 열심히 모여서 문제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에 열심을 쏟아낸다. 하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곳에서 헤브론 고마 공동체의 지체인 다음세대들이 로마서 1~3장을 암송해 걸어 다니는 말씀이 되어 도전장을 던지게 하셨다. 이제 시작이다. 이곳 다음세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울기 시작했다. 가난 뒤에 숨어서 오히려 가난과 질병이 우상이 되어 버린 이 아픈 현실의 죄악을 자신들의 죄로 인정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목회자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존재로 서서 오



▶ 복음스터디 중인 헤브론 고마 공동체(©김경희 선교사)

늘도 기도를 한다. 이미 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흘러가게 해 달라고 주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망을 본다. 복음을 입은 고마의 롤라드(중세시대 성경을 암송하는 자들)를 통해 일하실 주님이 기대된다.

이 땅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북키부주의 고마시에 있는 고마 헤브론 공동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서 있다. 십자가 복음 들고 말씀의 진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진하게 하실 주님,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

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으로 기경하실 주님, 가난과 에볼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빨라와 햄시바로 새 성읍으로 바꾸신 주님만 기대하며 2020년 새해를 시작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GNPNEWS]

민주콩고=김경희 선교사



▶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헤브론 고마 공동체 다음세대(©김경희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 믿음의 현장을 가다 | 시니어 선교사

“은퇴 후 남은 인생, 선교사로 주님께 드리세요”

46년생.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해군 장교로, 조선공학 교수로, 대학총장으로 학교를 일으키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은퇴 후 60이 넘는 나이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도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의 10년을 담아 <시니어 선교사 행전>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지나온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교의 자원이었으며, 선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북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는 김재복 선교사를 만났다.

- 늦은 나이에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셨나요?

“은퇴를 앞두고 지나온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인생에서 갚고 싶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불신 사위를 맞을 수 없다는 장모님 말씀에 교회에 나가게 됐죠. 건성으로 1년 반쯤 나가다가 독일 군 연구소로 혼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독일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는 말씀에 마음이 찡했어.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5)라는 말씀도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큰가? 싶었죠. 한국에 돌아와서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일반사회에서도 교수인데 교회 청년부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교재를 주셨어요.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 6개월이 아마 가장 성경을 많이 본 시기일 거예요. 그 후 군 교회에 출석했는데, 사관생도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심어줘야 하는데 군목은 여러 교단에서 올 뿐 아니라, 1년 반, 2년이면 바뀌는 게 아쉬웠죠. 그에 비해 저는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니까 교회 사정이나 행사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수석 장로 역할을 했어요. 대령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장로직을 주셨어요. 그때가 47세였어요.”

성경의 하나님 사랑에 충격

-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셨네요.
“그렇죠. 해군사관학교 교무처장을 거쳐 150명 정도의 교수를 총괄하고 생도들을 책임지는 교수부장에 대령까지 됐어요. 그런데 대령이 되고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별



시니어 선교사 행전을 쓰는 김재복 선교사(장지교회)

까지 달아 제독(육·공군의 장군)이 되었죠. 군 조직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이고 피라미드 구조여서, 모두 다 소령, 중령, 대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진급을 해요. 그런데 저는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독일과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박사까지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군인은 어느 때가 되면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는데 재취업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직 만 49세에 전역을 하기도 전에 남해에 설립하는 독립대학에 공채 지원을 해서 총장이 되어 연임까지 했으니, 이것도 큰 은혜였어요. 그때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다른 사람은 별도 달기 힘든데 우리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하고 말이죠. 아내와 저는 성향이 많이 달랐는데, 이 부분은 딱 뜻이 맞았어요.(웃음)
- 이후에도 마산에 있는 대학에 계셨다고 책에서 봤어요.
“남해대학 총장으로 7년 반쯤 되었을 때 마산에 있는 창신대학 총장님이 “이제 어쩔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쉬어야죠.” 했더니, “60도 안됐는데 쉬다니? 우리 학교에 오라.”고 하셨어요. 기독교 학교여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부총장으로 부임했어요. 여름방학에 교목이 청년부와 단기선교를 다녀오겠다고 해요. 허락을 했죠. 그런데 겨울 방학에도, 또 다음 여름방학에도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단기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계속 가나

고 야단을 치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필리핀이라고 했어요. 그 열 몇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먹고 자는 것을 누가 해줍니까? 했더니 현지 선교사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신세를 지게 하다니, 반드시 다음에 한국에 나오시면 무조건 채용 강사님으로 모시라고 했어요. 얼마 후 선교사님이 오셨고, 채용이 끝난 후 “한국에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선교를 나가십니까? 현지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궁금하시면 와 보세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가슴에 쿵! 하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궁금하면 선교지에 와 보세요”

- 주님의 사인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하니까. “여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요.”라고 했어요. 그래! 그게 이거구나! 둘이 가장 마음이 맞는 날이었죠.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다음 날 학교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학기중이니 학기를 마치고 가라, 학기말이 되니 학년을 마치고 가라.’면서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이러다가는 못 가겠구나, 결단 안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 후임자도 없었지만 학교를 나와 필리핀으로 정담을 떠났어요.”
- 직접 둘러보니 어떠셨나요?
“선교사님을 따라 농촌, 산골, 성경공부 하는 곳, 신학교 하는 곳을 보니 언어와 컴퓨터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무엇이든 선교사님

을 돕는 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뭘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주일 아침 일찍부터 세 지역에 가시는데, 산길을 돌아 오면 마지막에는 과감치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운전을 해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제일 귀한 일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교육자의 경험을 살려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가르치는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소개받은 학교에 가보니 학생들은 원하는데 할 수 없는 수업이 바로 한국어였어요. 한국에서 정식 교수를 한 사람이, 그것도 원어민이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니 다들 대환영이었죠.”

- 어떻게 수업을 시작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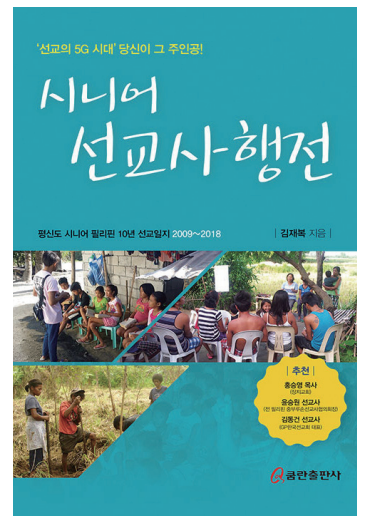
“정담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사 자격증 이수를 했어요. 그때가 필리핀에 한류바람이 불고 있을 때여서 다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파송받아 현장에 가보니, 저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군인 출신으로 교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특강을 해달라, 정규 담당교사를 해달라 부탁이 왔죠. 선교사가 부탁하면 제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해서라도 무조건 갔어요. 그 지역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는 다 가본 것 같아요.”

- 책에는 주일학교 이야기도 있던데요.

“필리핀에 간 지 3일 쯤 되던 날, 어딘지도 모르고 선교사님 차에 실려 농촌마을을 가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한 가득 있었어요. 한 집에 보통 아이들이 네 다섯 명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60~70년대 분위기였죠.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냐고 물었더니, “예배시간도 조정해야 하고, 집기들도 필요해서 주일학교가 없는데, 장로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더군요. 청년들이 있으면 좀 붙여 달라고 했더니 7~8명이 왔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 다들 좋아했어요.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 취업하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비싸거든요.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얘기했죠. “한국 가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 내가 주일학교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교사를 하면서 나를 도와줄래?”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시내에 가보니 의외로 주일학교 교재도 아주 많았어요. 학용품과 사탕을 나눠주니 아이들이 오픈예배에 100명씩 몰려왔어요. 주일에는 40명이 왔고요. 다들 기뻐했죠. 그 교

회가 빼이스교회예요.”

- 그냥 순종하니 교회가 생기는군요.
“또 다른 교회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잠시 골프를 쳤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캐디를 만났는데, 화산 난민촌에 있는 자신의 교회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난민이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 일인데, 아이들에게 줄 그림 그릴 종이와 크레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길 듣는데 너무 도와주고 싶었어요. 얼마 후 예고도 없이 찾아가 봤어요. 난민들이 비좁게 모여 사는 수용소 마을에 겨우 집 한 칸을 교회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 처지니 주일학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곳은 처음 갔던 마을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빼이스교회에서 30분 정도 거리여서, 그 교회 청년들에게 다시 부탁을 했어요. 청년들은 교회학교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됐다고 뿌듯해



▶ 김재복 선교사가 10년의 필리핀 선교 보고를 담았다.

했어요. 그렇게 생긴 교회가 로스(ROS)교회예요. 빼이스교회 예배가 끝나면 아내가 싸 준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면서 로스교회에 갔어요. 그곳에도 청년 2명이 있었는데 빼이스교회 청년들을 잘 보고 배우라고 했어요. 양쪽 교회 청년들 모두 더 빨리 배우고, 믿음이 자라갔어요. 로스교회의 첫 성탄절은 처음으로 성탄 발표회도 하고 다들 너무 기뻐했어요. 얼마 후 교회가 비좁아서 더 이상 예배를 볼 수 없어서 넓히고 더 넓혔어요. 이런 일을 보니까 사역이 너무 기쁘고 힘든 줄을 몰랐죠.”

- 그런데 어떻게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셨나요?

“선교사들 따갈로그어 현지 스테디그룹과 현지 학교를 맡아 교장으로 섬기고 있던 때였는데, 2018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믿음으로 사는 복음 (4)

주님보다 더 큰 위로자는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2) 양의 운명은 오직 목자
 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나를 푸
 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
 하신다는 것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주
 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께서 다 보장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솔직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워서다. 그러나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마다 걸어갈
 힘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
 고 혼자 못하면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 갈 수 있다.
 다행은 일평생 아무도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다. 친구도 그를 배
 신했다. 죽음에 내몰려 쫓겨 다니
 며 광야 한 귀퉁이라도 자기 땅 하
 나가 없었다. 어떤 때는 국경을 넘
 어 다른 나라로 도망했고 내일을
 보장하고 산 날이 없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그는 말한다. ‘여호와
 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메마른 광야 여기저기로 피
 해 다니며 주리고 목마를 때도 그
 는 고백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
 에 누이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
 하셨다. 나는 목마르지 않았다.’ 혹
 독한 과정을 지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고
 말한다. 죽을 것 같은 외로운 순
 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밤을 지
 나는 동안 두려움도 사실이지만,
 목마름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한 사실은 주님이 더 큰 위로로 함
 께 하시는 것이었다. 그 목마르고
 지친 순간에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도 다 보장되
 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일러스트=노주나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 피 값 주고 사신 구
 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어찌 모른다 하시겠는가. “자기 아
 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
 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
 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

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도전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
 시며 주리고, 아프고, 울기도 하셨
 다. 지독한 배신에 시달리기도 하
 셧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들을 겪으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
 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앞에 걸렸던 사람끼리는 긴 얘
 기가 필요 없다. 동병상련이라고, 아
 파본 사람끼리는 안다. 서러운 일
 을 당해본 사람끼리는 서러움을
 공유하는데 긴 말이 필요치 않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보신 주
 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
 셔서 ‘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 의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노라.’ 약
 속하셨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
 선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
 든 것에 감사한다. 주님의 허락하
 심에는 부족함이 없다. (2017년 9
 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PRAY”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비/상/한/때,
 비/상/한/기/도

2.27 ~ 4.2

매주 목요일(2/27, 3/5, 3/12, 3/19, 3/26, 4/2)

1부 저녁 6시 기도회

2부 저녁 7시 ~ 9시30분 예배, 메시지, 기도

참여방법 : 유튜브 “김용의TV”를 통해 온라인 참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강사진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태희 목사(그안예진리교회) 외

주관 기도24·365본부 다향의열심미니스트리 로그미션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학연구소
 (가나다순)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헤브론선교대학교 헤브론원형학교

주최 복음기도동맹

Interview

<5면에 이어>

“한국에서 하던 일을 선교지에서 하면 돼요”

년 12월에 목회자에게 현지 사
 역을 다 넘기고 들어왔어요. 처
 음 필리핀에 갈 때는 뼈를 문으
 려 했으니 오기 싫었죠. 건강도
 문제없고, 할 일도 많고, 나를 필
 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
 권유로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
 도 있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런데 와서 보니 더 중요한 것이
 시니어 선교를 일으키는 것이었
 어요.”

- 시니어 선교에 대해 좀 더 들
 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선교사 헌신율은 떨어지고, 시
 니어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러면 손 놓고 젊은 사람만 기다
 릴 것인가? 아니죠. 우리나라 평
 균 55~6세가 정년이에요. 아직
 일할 나이인데 재취업은 쉽지
 않죠. 자영업을 해도 성공이 쉽
 지 않죠. 갈수록 위생과 영양은
 좋아져서 이제는 100세 시대인
 데, 50세 후반에 은퇴하고 남은
 3~40년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죠. 보통 사람들은 건강관리하
 고 친구 만나고 여행하고 살겠
 지만, 크리스천은 주님이 그때
 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싶
 은 거룩한 부담이 다 있어요. 그
 럼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예요.

선교가 가장 좋은 답이에요. 대
 부분 선교지는 한국보다 생활비
 가 적게 들어요. 한국의 20% 정
 도면 생활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한국에 비해 남은 액수만큼만
 사역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나가보니 주님은
 내가 생각한 만큼만 하라고 하
 는 분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주는 작은 용돈. 선교지를 위해
 내어놓는 성도들의 작은 헌금.
 그런 재정을 현지 학생 몇 명의
 장학금으로 써서 대학을 졸업하
 고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
 어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
 은 것처럼 너도 나중에 돕는 사
 람이 되라고 하며 지원해요. 그
 렇게 하면 시니어가 못할 일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또 뭘 하
 나? 은퇴할 때까지 하던 일을
 선교지에서 하면 돼요. 한국에
 서 하던 일은 선교지에도 다 필
 요하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선교사 한 명이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열 명의 선교사를 가르쳐
 보내는 선교사 동원훈련. 아, 그
 게 맞구나 싶은 마음에 한국에
 오길 결정했어요. 책도 그런 의
 미에서 썼어요.” [GNPNEWS]

E.J.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전통에 매인 무슬림은 자유로운 나를 부러워했다

A국의 1억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다음세대다.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내게 먼저 한국인이라고 말을 거는 친구들도 많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명이라도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곳의 친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다. 그 갈망은 한국의 K팝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공부에 전념하는 것으로,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내 또래 무슬림들에게도 공통적인 도전이 있다. 그것은 SNS를 통해 멀리서 보기만 했던 세상의 것들과 무슬림 전통의 충돌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무슬림 친구에게 왜 그렇게 힘



일러스트=고은선

들게 기도를 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냥!'이라고 답했다. 신앙이 깊어서도, 알라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도 아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무슬림의 전통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자유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를 부러워한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는 선교사로 이곳에 부르셨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하는 군사로.

하지만, 내가 얼마나 선교사로 살기 싫어하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럴 때는 아랍어를 공부하는 평범한 스무살로, 저럴 때는 꽤나 특별하게 헌신한 단기선교사로, 필요에 따라 나를 바꾸는 게 익숙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서 발견한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게 주님은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야!"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군사된 직무를 유기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여전히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 두셨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 가도록 일하신다! [GNPNEWS] 이엘

코로나 앞에서 사스, 메르스를 떠올리며

2015년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에 중국에 있던 나는 정신이 없었다.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아내의 간호를 위해 난 병원의 간이침대에서 생활했다. 병원 한쪽에는 메르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격리 시설이 있었다. 나는 죽음과 조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 병원 주변을 거닐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병의 발원은 중동의 낙타라고 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이 없다. 2003년 중국에서 발원한 '사스'(SARS) 역시 아직까지 백신이 없다고 한다. 백신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안전하지 실험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도 이미 질병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경제

적 측면에서 백신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기 전까지는 치료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죽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람과 땅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각각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서 이 땅의 훈련을 다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경우, 평범하지만 주어진 수명을 다한 경우 등이다. 죽는 모습과 정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불속에서, 고문과 야수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너무 편한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에 살아서 우리의 의식이 순교를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졌는가? 그러면 기독교는 이름만 남는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순교를 결심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기독교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보니 나는 어느새 사스, 메르스를 겪고 지금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이 시대는 죽음이 사방에서 다가온다.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살려고 바동대는 것과는 다른 시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유목 생활이다. [GNPNEWS] 조용선

부흥을 위하여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 중시하는 정치인 필요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한국의 전직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학자, 변호사들이 오는 4월 한국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후보들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이들은 21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4월로 예정된 한국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준수해야 할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인 북한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갖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에 나설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유엔이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준 전 한국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총선 후보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 등 대북 압박 조치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지

난 2017년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우방의 도움을 받아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제재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군사적 수단인 만큼 이를 선불리 포기해선 안 된다."며 "대북 제재 완화는 국제 사회의 정의와 대의에 반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 또는 비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북한의 핵무

장과 폭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사는 또 "한국 정부에게는 탈북민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총선 후보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한미동맹이 한국 전쟁 이래 70년 동안 한국 국가

안보의 핵심적 토대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이 국가를 지키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을 토대로 하는 한미 연합 훈련과 미사일 방어망 등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GNPNEWS]

"황해도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 한 주민 강연서 제기됐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산당 간부가 강연회에서 '발병'을 공식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이달 14일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코로나 관련 주민 대상 긴급 강연회에서 리(里) 당 위원장이 황해도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보

도했다. 또한, 지난달 평양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 3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격리 수용됐다. 또한 급성 폐렴이나 고열로 사망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 내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갖은 수단을 총동원하자 오

히려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여간 이어진 북한 당국의 과도한 공포감 조성은 이 전보다 강해진 대응이 주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말 국가 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개인위생 안전에 대한 선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통제된 상황에서 밀수하던 일부 군인들이 잡혀 비공개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밀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국경을 다 막아 놓았으니 군인들이 한숨만 쉬고 있다며 군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풀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GNPNEWS]

복음의 능력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은 우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변형시킨다. 본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다. 그 다음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이는 생명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 그러한 사랑이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정화된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천천히, 또 지속적으로 닮아갈 것이다. [GNPNEWS]

〈성령님(2006), A.W.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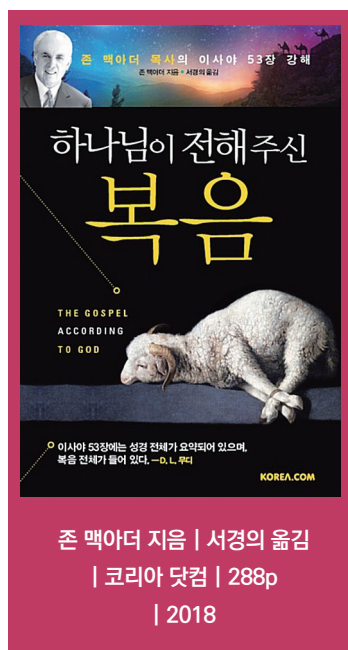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맥아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반드시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 존 맥아더의 이사가 53장에 대한 강해 설교다. 내게 이 책은 십자가의 참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단순히 죄를 사해 주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십자가여야 하는지 이 책은 분명한 답을 알려준다.

예수님에 대해 이사는 이렇게 예언한다. 주 앞에서 자란 연한 순같은 불품없는 존재.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나사렛 출신이었다. 주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으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던 주장으로 인해 버림받으셨을 뿐 아니라 끔찍

한 죽음에 처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신 일이 없으셨다. 오히려 어떻게든 드러내시려고 애쓰셨다.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억울한 재판 과정을 통해 명목상 모양만 갖췄지 거의 살해에 가까운 죽음을 당하셨다. 주님이 그런 죽음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살인 광기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로마의 잔인한 채찍질로 예수님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상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차라리 못 본 것처럼 얼굴을 돌려야 했다. 이사는 이 장면을 예언하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사

53:4)고 이야기한다.

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모습이다.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지 우리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 이럴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이용 대상일 뿐이다. 난 예수님의 채찍질과 십자가의 장면을 성경이나 영화에서 볼 때마다 불편한 심경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버리고 짓밟고 반역했다고까지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께 버려지는 장면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여 보

았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받은 질고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탄생 700년 전 이사가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한다.

다윗 이후로 수많은 배교와 타락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사라질 수 없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는 마침내 부활로 열매 맺게 되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세상과의 전쟁을 치르는 요동치는 심령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 분은 다시 사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온전한 사랑을 보라

제 삶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난 후, 광야로 가는 길 즈음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분과 함께 살게 된 부활 생명이라는 감동은 어스푸레 있었지만, 참 자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넘어질 수 없는 생명이 되었어. 새 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말씀이 이만큼 읽어야 하고, 기도는 최소한 이만큼의 시간은 해야 하고, 섬길 때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섬겨야 하고, 이 분을 대할 때는 이렇게, 저 분을 대할 때는 저렇게,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온 몸이 잔뜩 긴장을 한 채 살아가던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어졌고 치유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오전 예배가 2시간을 훌쩍 넘는 참 놀라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부터 저의 중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메말라 있습니

다. 사역에 지쳐 있습니다. 충분한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계신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내일 당장 나오십시오. 여기에서 함께 마음껏 말씀 읽고 기도하며 훈련합시다.” 그 말을 들



일러스트= 이수진

은 제 마음에 이내 깊은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나의 실상을 대면하자 두려움이 물려왔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의 권면은 나의 현실을 보았을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며 음란한 죄를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다시 넘어지는 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큰 의무감이 되어 있는 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상대하는 나, 즐거움보다 긴장감으로 섬기는 나... 그러다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없는 나는 지친

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얽매이는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혼미케했던 분은 이단으로 드러나 제가 다녀간 몇 주 후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부끄럽고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얽매이는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혼미케했던 분은 이단으로 드러나 제가 다녀간 몇 주 후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부끄럽고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떡하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으로 떠는 저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 되겠다는 진짜 결론이 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3:18)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길을 두려움 없는 새 생명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계속 사랑하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GNPNEWS]

구태훈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2. 5 ~ 2. 27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고은영 권순호 김다경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정대 김정임 김지영 김혜신 나갑찬 나요한 나주평 박숙자 박승은 안병윤 유국주 은종숙 이경형 이삼연 이은주 이종희 이준진 이항구 이흥후 정윤희 정인호 조경미 조명숙 차상복 차인순 차정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그루티교회 김포공주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돌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교회 시흥교회 오보평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소망교회 참꽃터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PM복음과기도미디어 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